

인천시 일부 주민들의 영유아보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Vol. 5, pp. 31~51, 1974.

김 영 숙

전술한 바와같이 영유아에 대한 양호한 건강관리는 개개인의 행복한 생활 뿐만 아니라 국력배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의 조사결과 영유아의 질병예방을 위한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의코저 한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잘 되어 있으나 주부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300명중 접종을 안한 수가 28명인데 그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9명이 vaccine 자체를 몰랐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었다. 특히 교육정도가 높은 주부들의 “몰라서”라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겠으나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서민층의 저학력군의 주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선 보건소를 찾는 부모들에게 주기적으로 그 일자를 정하여 보건교육의 기회를 자주갖고, 구체적으로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의 무엇을 언제 시행해야 되는가를 뚜렷이 알도록 해줄것과 그 지역내의 중류이하 서민층을 전대상으로 하여 등록되지 않은 가정이라 하여도 빠짐없이 각 가호방문을 통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계몽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또한 그 지역내 개업의 종합병원에서도 협조를 하며 유아원 국민학교에서도 부모들을 상대로 보건교육의 기회를 주어 전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영유아 건강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망한다.

일부 농촌 부인의 가정분만 실태조사

대한 간호, vol. 13, No. 1, pp. 76~96, 1974.

김 영 자

197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에 살고 있는 농촌부인으로서 한번도 병원분만을 하지 않은 117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분만 실태

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정분만 대상자 총 1172명의 연령별 분포는 24~48세군이 982 예(83.8%)로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생식능력이 왕성하고, 가임연령층인 29~38세군이 486 예(42%)로 가장 많았다. 최소연령은 19세이고 최고연령은 58세이다.

2.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국졸 이하가 886 예로 75.7% 나 되었다.

3.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는 29~53세군이 682 예로 83.7% 나 되었고 그 중에서도 29~43세군이 692 예로 57.1% 나 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연령은 19세이고 최고연령은 58세로 대상자의 연령층과 같았다.

4.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한글 해득 이상 고졸 이하가 1018 예로 86.9% 이었다.

5. 경제적 생활수준(배우자의 취업)은 농업이 536 예로 45.6% 이었고 상업이 19.3% 나 되는 일부분이 중등도 이하의 생활수준이었다.

6.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응답자 1172명 중 556 예로 47.5% 이었. 그 중에 34~38세군의 연령이 156 예로 58.6% 나 되어 수위이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54 예로(62.8%) 수위를 보였다. 고령층과 저학력일수록 실시자가 적었다.

7. 분만횟수는 3회가 222예로(19.5%) 수위였으며 최저 분만횟수는 1회로 108예(9.2%)이고 최고분만횟수는 10회이상으로 30예로 2.4% 이었다.

8. 현재 자녀수는 2남 1녀가 118예로(10%) 수위였으며 최저자녀수는 분만했으나 남녀 1명도 없는 대상자가 14예로 1.2% 이었고 최고 자녀수는 8남 3녀로 2예인데 0.2% 이었다.

9. 임신 중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은 응답자는 68예(5.8%)로 저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29~33세군이 26예(11.8%)로 수위였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18예(56.3%)로 수위인데 고령층과 저학력일수록 낮은 성적을 보였다.

10. 분만에정일 계산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6예(55.1%)이었고 연령별로는 24~28세군이 128예(86.5%)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과 대졸이 각각 86예, 32예(100%)로 고율을 보였다. 이로부터 고령층과 저학력의 농촌부인들은 진통이 와야만 비로소 분만일을 아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11. 사산의 경험은 286예(24.4%)이었고 연령별로는 54~58세군이 28예(44.6%)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문맹이 24예(36.4%)로 수위인데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은 응답자에 비하면 사산의 경험자는 적은 비율을 나타냈고 고령층과 저학력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 조산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2예(15%)의 낮은 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49~53세군이 20예(27.1%)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한글 해득자가 58예(19.0%)로 가장 높은 율을 보이고 있었다.

13. 임신중 유방간호를 하는 응답자는 226예(19.3%)로 낮은 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4~28세군 78예(52.8%)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22예(68.8%)로 수위를 보였다.

14. 분만개조는 조산원에 의한 개조가 142예(12.6%)의 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모에 의한 개조가 542예(46.1%)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 보면 한글 해독이 384예(32.7%)로 수위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개조자 1030예(87.4%)가 무자격자였고 학력도 934예(80%)가 국졸 이하였다.

15. 분만후 태반조사를 하는 응답자는 206예(17.6%)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도 농촌부인에게 있어서 태반의 잔여조각이 산후출혈의 위험과 산후자궁수축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산전간호의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9~23세군이 20예(37%)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22예(68.8%)로 높은 율을 보였으며 연령에는 반비례적이고 학력에는 비례적이었다.

16. 제대절단시 사용 기구는 1080예(92%)가 가위사용이었고 연령별로는 54~58세군이 60예(96.7%)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86예(100%)의 높은 율을 보였으나 아직도 비위생적인 기구(낫, 수수깡, 사기조각 등)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산전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7. 제대절단기구를 소독하는 응답자는 486예(41.5%)인데 연령별로는 24~28세군 98예(66.2%)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30예(93.7%)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젊은 연령층과 고학력일수록 소독하여 사용하는 응답율이 높았다.

18. 제대결실로는 무명실이 584예(72.9%)로 수위이며 연령별로는 49~53세군이 24예(32.4%)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 116예(6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명주실이 190예(16.2%), 삼실이 76예(6.5%) 나이론실이 52예(4.4%)의 비율을 보였다.

19. 복대를 소독하여 사용하는 응답자는 386예(33%)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10~23세군이 30예로 55.5%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26예(81.2%)로 높은 율을 보였다.

20. 분만후 초유를 수유한 응답자는 760예(64.8%)로 반수가 넘었으며 연령별로는 29~33세군이 158예(71.8%)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28예(87.5%)로 수위를 보였는데 연령에는 반비례적이고 학력에는 비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21. 초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로는 습관때문인가 226예(54.9%)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54~58세군이 28예(70%)로 수위이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4예(100%)의 비율을 보였으나 응답자의 수가 적으므로 중요한 가치로는 볼 수 없다. 다음이 문맹으로 22예(84.2%)를 보였다.

22. 농촌부인들이 병원분만을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448예(38.2%)였으며 연령별로는 19~23세군이 28예(51.9%)로 수위이고 교육수준별로는 문맹이 32예로 48.4%를 차지하여 수위를 보였다.